

날은 홍범도장군

VOL. 33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편집위원장 김용환
 편집위원 박석봉, 정우기, 한동건, 김유림, 김은정
 발행처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전 화 02-786-8747
 팩 스 070-7469-8747
 창간일 2014년 8월 15일
 홈페이지 www.hongbumdo.org
 계간/비매품

Contents

인사말

- 인사말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3

학술회의

- 대한민국군 사령관 안무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이숙화 한국외대 외래교수) 04
-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김경준 홍범도아카데미 간사) 06
- 박경철, 한국의 독립투사 (한 블라디슬라프 빅토로비치(koryo-saram site 편집인) 09
- 학술회의 총평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1
- 학술회의 개최 경과 보고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16

책소개

- 독립운동연구자료의 지평 확장 : 「간도출병사」 뒤집어 읽기 20
 (김연옥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탐방기

- 카자흐스탄 역사탐방기 (이명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23
- 까레이츠의 혼과 얼 (한종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29

회원 기고

- 홍범도대장군과 ‘...19’ 그리고 나 31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기념사업회 소식

- 회원동정 42



인사말



우원식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올 한 해도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로 기념사업회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기념사업회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이사님들과 함께 직접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가서 유해봉환 1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고려인 사회와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념사업회의 주선으로 우리나라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주 간의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농산품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크즐오르다국립대학의 교육사업 협력을 주선한 결과로 서울과기대와 크즐오르다대학이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정부의 ODA 지원사업으로 크즐오르다대학 내에 인공지능정보대학(4개과 개설, 일명 '홍범도장군컬리지')설립 사업을 현실화했습니다. 크즐오르다대학 총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과기대와의 교류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관심과 노력을 다 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사업회는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려인 사회,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봉오동전투 승전 102주년' 기념식을 국회에서 개최해 독립전쟁 첫 승전의 의미를 되새겼고, '제2회 홍범도배 사격대회' 또한 전남 나주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며 홍범도장군의 독립정신과 위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분과, 행사분과, 편집분과, 역사분과 뿐만아니라 홍범도아카데미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기념사업회 운영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식, 사격대회 뿐만아니라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초청공연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정부 예산 2억7천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독립전쟁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 많은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독립전쟁 기념 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한 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계묘년 새해에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이사장 우원식

편집자 주 올해 학술회의는 작년에 이어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주제를 두 번째로 다루어 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식지에서는 각 논문의 머리말과 맺음말을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학술회의

대한국민군 사령관 안무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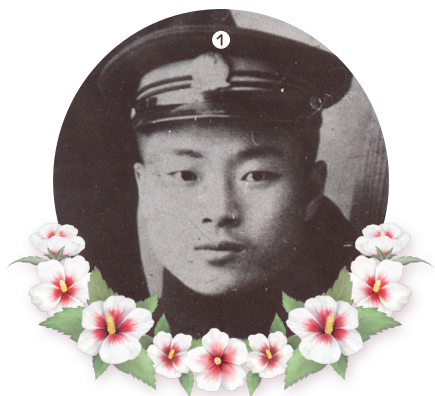
이숙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외래교수

머릿말

안무(安武)에 관한 글은 「자유」지에 실린 신용하의 글 상하 2편(1990년)이 있고, 본격적인 연구는 2020년 김경준의 논문이 유일하다. 단행본으로 안무의 항일투쟁을 다룬 「항일국민회군」(1974, 국민회군편찬위원회)이 있다. 주지하듯이 「항일국민회군」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많은 오류와 왜곡된 내용들도 있어서 사료로 쓰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의 글들은 안무의 첫 논문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지만, 「항일국민회군」의 많은 부분들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서 사실관계의 오류를 되풀이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은 안무 연구에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성하였다.

안무는 한국독립운동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883년에 태어나 대한제국 진위대 하사관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대한민국회 남부지방총회 경호대장에서 대한북로독군부 부관을 거쳐 국민군사령관에 올랐다. 그는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던 19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 양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고, 자유시침변 이후로는 고려공산당 중앙간부로서 공산주의 노선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1924년 용정 일본영사관 경찰의 습격으로 순국할 때까지 안무는 항일의 무장투쟁가로서 삶을 살았다.

안무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있다. 안무의 부친 안수익과 홍범도이다. 안수익은 안무가 진위대에 입대하고, 일본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자 간도로 이주하여 항일운동가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홍범도는 안무가 대한민국회에 입회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항일무장투쟁가로 성장하는 데에 길 안내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안무에 대해 일가 후손들은 안무를 “안무 하사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독립운동사에서 저명한 영웅 중심의 연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사관, 부관으로서의 안무는 주목받지 못했고, 그래서 ‘안무 사령관’은 잊혀져버렸다. 이 글은 독립운동계의 이인자로서의 안무를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복원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실상, 안무에 관한 사료나 기록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다행히 선행 연구에서 안무의 기록을 찾아 조각으로 맞출 수 있었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독립군통합



운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안무의 행적들이 수면 위로 오른 점이다. 본 발표문은 선행 연구에서 규명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존에 제기된 주장에 비판적인 논의도 함께 서술하려고 한다. 예컨대, 안무의 봉오동, 청산리전투의 불참설과 러시아령 이동과정에서 있었던 독립군통합운동에 안무가 불참했다는 설 등이다.

본 발표문은 안무의 생애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고, 1921년 말 고려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한 시기까지만 집중적으로 논했다.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둔다.

맺음말

1922년 이후로도 안무는 계속해서 고려공산당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에는 민족주의계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만몽신당' 설립에 참여하였고, '노농신정부수립'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1923년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도 대한민국군 대표로 참여하는 등 그는 끊임없이 항일투쟁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안무는 1924년 9월 6일 병사 30여 명과 함께 군자금 모금을 위해 연길현에 갔다가 일본영사관 경찰들과 총격전에서 총경 상을 입고 체포되었다가 9월 7일 자혜병원에서 순국하였다.

본고는 안무의 생애와 그의 항일무장투쟁을 살펴보았다. 대한제국 진위대 교련관 출신의 안무는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에 참전을 계기로 북간도 대한국민회의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다. 안무는 1919년 10월 초 경국민회에 입회를 했으며, 1920년 1월 경 화룡현 덕화사에서 대한국민회 남부제2지방회가 설립되자 그곳의 경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5월 초에 국민회 본부의 군

무위원으로 영입되었다. 곧이어 대한북로독군부의 일원이 되어 최진동의 부관으로서 봉오동전투에 참전하였다. 안무는 대한국민회 군무위원 대표로서 독립군통합운동에도 참여하는 한편, 1920년 8월 10일 대한국민회에서 정식으로 국민군을 창설할 때 대한민국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안무가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기까지는 총순 출신으로서 부친인 안수익의 영향이 컸지만, 대한민국군 사령관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기까지는 홍범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안무와 홍범도는 15살이나 차이가 났고, 안무는 정규 교육을 받은 교련관으로, 홍범도는 교육을 받지 않은 포수로서 두 사람은 출신 배경도 완전히 달랐지만, 홍범도가 대한국민회 정일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안무는 대한국민회 독립군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안무가 청산리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고에서는 안무의 청산리전투 참전을 사실로 확인하였다. 안무는 국민군을 인솔하여 청산리로 이동, 이도구에서 홍범도 부대에 합류하였고, 어랑촌전투의 승리를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청산리전투 이후로 러시아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안무는 홍범도 부대에 합류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의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 자유시참변에서 안무는 홍범도와 함께 고려혁명군정의회 편에 섰는데, 이것을 계기로 안무는 이후 공산주의를 수용하여 고려공산당 중앙간부로서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향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한국민회가 북간도의 고려공산당 중앙총부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안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북간도의 쟁쟁했던 명망 높은 독립운동가들 틈에서 안무의 이름과 역할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군 사령관 안무가 살았던 삶의 여정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중반까지 북간도지역 항일무장투쟁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안무의 생애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거쳐 자유시참변과 그 이후 북간도 지역에 확산되었던 공산주의 계열 항일투쟁사와 연결된 점에서 항일무장투쟁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놓았다.

❶ 1902년 경성 진위대 교련관 시절의 안무(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학술회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 북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 홍범도아카데미 간사

머리말

지난 20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바로 ‘봉오동 전투’이다.”라는 글을 통해 봉오동 전투의 두 주역을 기렸다.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독군부 및 신민단 등 북간도 지역에 산재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였다. 그리고 최진동은 대한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봉오동 전투=홍범도’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고착화되어 있는 듯하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도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하면서 전투를 홍범도 홀로 지휘한 것처럼 묘사된 것이다. 사실 봉오동 전투 당시의 활약 뿐만 아니라 최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홍범도에 비해서는 대중들에게 많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학계에서조차 최진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에 봉오동 전투 및 홍범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꽤나 많이 축적돼 왔다. 그러나 최진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소논문 한 편 없는 실정이다.

최진동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2006년 연변 학자들에 의해 발간된 『최진동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최진동의 삶을 전기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의 출생과 성장배경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최진동의 삶을 가장 자세히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진동 중심의 서술로 인해 오히려 그의 역할이 너무 과장 서술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최진동의 공적이나 활동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숙화는 1910~20년대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군 단체들이 조직되고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최진동이 이끄는 도독

부(都督府)가 결성된 계기와 1920년 3월 최진동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온성 전투’를 소개하면서 최진동의 초기 항일무장투쟁에 주목했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당안관 소장 자료를 인용해 최진동이 무장투쟁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대한 새로운 설을 제시했다.

이계형 역시 봉오동 전투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흥범도에 주목한 경우는 많지만 정작 봉오동 땅의 주인이었던 최진동 형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진동 형제가 도독부를 조직하게 되는 과정과 활동에 주목했다. 특히 최진동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최운산·최명순)이 가산을 모두 독립군에 헌납하여 막대한 군비를 조달한 것이 도독부 및 북로독군부의 성립에 결정적 기반이 됐다면 다른 형제들의 공로와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김영환은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 봉오동을 주목한 연구에서 봉오동을 군사기지로 일군 최진동 형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1910년 봉오동으로 이주한 최진동 형제가 봉오동 일대의 광활한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대규모 목장과 농경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한 뒤 1915년 무렵 봉오동을 완전한 독립군 군사기지로 탈바꿈시켰음을 확인했다.



① 1922년 1월 모스크바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흥범도 장군(왼쪽)과 최진동 장군이 레닌에게서 선물 받은 적군 복장과 권총을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우순은 최진동의 생애와 독립운동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의혹에 대해 정리했다. 장우순, 『대한북로독군부 총사령관 최진동의 생애와 친일 논쟁』,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7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2022. 특히 최진동의 삶을 성장기(1893~1910)-애국 계몽운동기(1910~1919)-무장항일투쟁기(1919~1924)-수감 및 평화적 민족운동기(1924~1941)로 나눠 그의 삶과 민족운동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최진동 연구에 또 한 번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최진동 장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소 과장된 서술이 보이며, 그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시기별 혹은 사건별로 최진동의 삶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진척을 이루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북로독군부의 수장이었고 1920년 전후로 두만강 일대에서 줄기차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만큼 그의 삶과 민족운동을 상세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가 복간도 지역에서 전개했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최진동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모든 교섭은 최진동씨가 주로 하였는데 최씨 말이 내가 소위 독립군 총사령으로 있던 자로서 관동군의 공작비를 먹고 선무공작을 한다고 하면 독립군의 신망을 얻지 못하니 귀순공작이 오히려 해가 될 뿐아니라 나 자신의 威信에도 관계되는 일인즉 소위 공작비는 일꾼도 요구하고 싶지 않고 다만 임지 벌목 허가나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니다.”

그는 비록 옛 부하들의 생계를 위해 귀순했으나, 마지막까지 자신이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자 했던 것 같다. 이후 병세가 악화된 최진동은 1941년 11월 25일 눈을 감았다.

본고에서는 1920년 복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최진동이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하게 된 계기와 그가 주도한 무장투쟁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대한군도독부→대한북로독군부→대한총군부로 이어지는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행보를 정리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진동이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지 못했다. 일제의 기록을 보면 최진동은 러시아로 건너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을 추진했고, 근거지인 복간도로 귀환한 후에도 재기를 모색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1926년 중국 감옥에서 석방된 뒤 그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최진동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맺음말

자유시 참변 이후에도 최진동은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의 기회를 노렸다. 일제 첩보에 의하면 1921년 10월 무렵 최진동은 훈춘한민회(琿春韓民會) 군무부장 최경천(崔慶天)이 이끄는 부대와 함께 추풍(秋風) 지방 일대에 근거를 둔 채 마적 700여 명과 연합하여 삼림에서 군사교련을 하는 등 재기를 모색했다.

러시아 일대에서 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최진동은 1923년 무렵 중국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해 9월 초 최진동은 김좌진, 나중소, 김원봉 등과 돈화현(敦化縣) 산성자(山城子)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각 단체의 통일과 이후 운동 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결과 무장단 50명을 조직하여 조선으로의 국내진공작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또 중국 관현의 양해를 얻어 보위단을 조직하고 400명의 무장대를 훈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최진동의 노력은 1924년 9월 봉직전쟁(奉直戰爭) 당시 그가 직예파(直隸派) 오패부(吳佩孚)와 친분이 있다는 혐의로 동녕현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좌절을 맞았다. 길림독군공서(吉林督軍公署)에 압송된 그는 1926년 8월에야 간신히 풀려났다. 그는 고향 봉오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도 일본 총영사관을 찾아 “이제 불명(不明)을 뉘우치고 근신하며 오로지 가업에 힘쓸 것과 함께 각지에 유랑하고 있는 옛 부하들을 불러 오로지 농업에 종사케 할 것이므로 특별히 관대한 조치를 바란다.”며 귀순 신고를 마쳤다. 일제 당국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봉오동으로 돌아온 최진동은 오랜 수감 생활로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

말년의 그는 일본 관동군 간도 선무부(宣撫部) 도문본부부장 이기권(李基權)과 함께 귀순 공작에 앞장서는 등 완전히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된 이기권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진동이 일제에 협조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는 협조의 대가로 관동군에 임지(林地) 벌목 허가를 교섭했다. 그런데 이는 옛 독립군 부하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최진동과 이기권은 “가급적 한인 독립군에게는 귀순 공작을 피하고 만인(滿人) 토비들에게나 귀순 공작을 하자.”고 약속했다 한다. 그러면서도 관동군의 공작비 지급을 거절했다.

박경철, 한국의 독립투사

한 블라디슬라프 빅토로비치

koryo-saram site 편집인



나는 역사 연대기 『한씨 형제(Братья Хан)』의 집필을 준비하면서 박경철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창걸 빨치산부대의 참모장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한씨 형제』의 주요 부분을 쓴 후에 내 안의 지적 호기심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나는 한국의 독립투사들에 관한, 한창걸의 전우들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더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타슈켄트에 있는데, 사건은 원동에서 일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공화국 차원의 정치연구 수령자들의 서류들을 그들의 이력서 및 고급 연금의 수령 자격을 보증하는 문서들과 함께 소장하고 있는 타슈켄트 주 아카이브에 문의해 보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공자의 서류들 속에서 박경철의 파일(델로 228)을 만났습니다. 파일철을 열자 내 앞에 한창걸 전우의 서류가 있다는 걸 실감했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문서들 가운데 그의 이력서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경철은 1885년 3월 14일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1909년 조선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 이후 그는 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조직하며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투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본 군부의 징벌적 조치와 반역자들의 선동이 강화됨에 따라 그는 만주로, 그다음에 러시아로,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 이주해야 했는데, 거기서 짜리 당국은 일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한인들의 항일운동을 금지했습니다. 1913년 비합법 상황에서 그는 노동청년학교 간판을 걸고 야간에 한인 청년들 사이에서 항일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1917년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의 봉기 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지지하는 한인 주민들의 시위와 집회의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박경철은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 부대에 참모장으로 들어가



훈춘과 두만강 일대에서 일본 토벌군과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을 받은 한인 빨치산부대는 1920년 11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

범도 장군과 헤어진 박경철은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한창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南)연해주 아누치노로 향했습니다. 한창걸의 파일에는 그의 빨치산수첩에서 발췌한 한창걸 사진도 있었는데, 그 때문에 내가 그의 용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박경철이 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서 아주 희귀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려혁명군사회의 위원 한창걸, 최호림이 고려혁명군 제1대대장 박경철에게 보낸 명령서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형언할 수 없는 역사와의 교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한창걸의 친필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경철은 자기 상관의 마지막 명령서를 성물처럼, 빨치산 시절의 기억처럼, 그 명령에 대한 충성의 상징처럼 평생 보존하고 간직했습니다.

또한 그의 노동목록[=노동수첩]을 통해 나는 그가 1931년 원동 국립사범대학 자연과학부에 입학했으며, 거기서 빨치산 출신으로서 증액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35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원동변강 체르니코프카 지구의 제22학교 교장으로 파견되었으며, 1937년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미 1937년 말부터 그는 타슈켄트 주 스레드네-치르치크 지구의 제23중학교에서 화학과 생물학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7월 그는 한국어 수업이 있는 학교들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23학교에서 의원 면직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1939년 그는 스레드네-치르치크 지구의 콜호스 《노비 푸치[=새로운 길]》에 정원으로 들어가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1950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1891년생인 아내 박순애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주목받은 적 없는 박경철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그의 공헌에 최소한의 평가도 받지 못한 채 1967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삶을 바친, 우리 가운데 살았던 영웅을 추모하며 그에 관한 뒤늦은 기사[=박경철(1885-1967)]를 썼습니다. 《고려사람》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고 얼마 후에 나는 정 예브게니야 게오르기예브나로부터 박경철이 자신의 할머니인 박순애와 결혼했는데, 박순애는 최찬식의 미망인으로 이 두 사람에게 3명의 자녀가 있으며, 박경철과 박순애 사이에 아이가 1명 태어났으나 그는 어렸을 때 죽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한 정 예브게니야는 박경철이 아내, 즉 정 예브게니야의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 그들의 집에 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웅이 완전한 망각과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나의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박경철은 곁에 있는 의붓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콜호스 《폴리트오트젤[=정치부]》의 농촌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2019년 정 예브게니야는 박경철의 묘소에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서야 나는 박경철에게 201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박경철에 관한 기사가 《고려사람》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에 정 예브게니야는 박경철, 박순애, 최찬식, 그리고 자신의 친척에 관한 작은 팸플릿을 발간했습니다. 그 후 최찬식이 대한민국의 영웅임이 밝혀졌으며, 2014년 6월 17일 정 예브게니야는 최찬식에게 2006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한창걸 빨치산부대의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박경철의 파일에 “올가 전투에 관한 《선봉》신문의 기사가 영웅을 위한 가장 큰 상이었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 구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즉 신문 《선봉》을 대표하고 사진과 함께 기사를 발표한 연구자이자 저널리스트인 И.И. 바비체프가 확실히 박경철과 만났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히 추정컨대, 나는 사진 속에 박경철의 대대가 있고, 맨 앞줄 중앙에 있는 인물이 박경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회의 총평

학술회의 총평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 홍범도 아카데미 원장

봉오동전투 세 동지들 - 안무, 최진동, 박경철

이번 학술회의는 작년도 학술회의에서 시작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1)”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한 학술모임이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홍범도아카데미가 주관한 첫 학술행사이기도 하다. 작년의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함경도 항일의병투쟁 시기의 동지 차도선, 러시아 연해주 망명 시기의 절친한 동지로서 둘째 아들 홍용환을 보살피고 키워준 최병준, 1920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동지 이병채와 허근 등 네 분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특별주제로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소설 「아버지와 홍범도」를 소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1920년 봉오동 전투 당시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일본군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동지 안무(1883~1924), 최진동(1883~1941), 박경철(1885~1967) 세 분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봉오동전투 직전 ‘3단연합’으로 성립한 대한북로독군부의 핵심 간부들로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도자들이었다. ‘3단연합’이라는 용어는 대한군정서 총재 서일이 「성포문」에서 사용한 명칭인데, 대한국민회, 대한군무독부, 그리고 홍범도의 북로정일(北路征日)제1군사령부의 3개 단체가 연합한 사실을 말한다. 북로정일제1군사령부는 국민회의 인적·물적 지원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국민회 병력을 기반으로 창설한 군사령부였다.

‘3단연합’은 5월 19일 대한국민회(대표 김병흠, 군무위원장 안무)와 군무독부(대표 최진동)간에 두 단체의 연합에 합의·서약한 후, 5월 하순 북로정일제1군사령관 홍범도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조직하였다. ‘3단연합’ 이전에 안무는 대한국민회 군무위원회 위원장, 최진동은 대한군무독부 부장, 홍범도는 북로정일제1군사령부 사령장관(사령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1920년 6월 7일의 봉오동전투를 비롯한 전투 과정을 이끈 대한북로독군부에서 최진동은 북로독군부 부장, 안무는 독군부장 부관, 박경철은 북로정일제1사령부 참모부장(참모장) 이병채의 부관(副長)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봉오동전투이후 1920년 8월 상순에 이르러 북로독군부가 분열되어 3단연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세 사람 역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세 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호간에 양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안무는 북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국민회 연구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인물로 최근에 그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이 나왔다. 최진동의 경우, 그의 동생 최운산을 기리는 기념사업회에 의하여 몇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박경철의 경우에는 국내 학계에서는 단독 주제로 다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이번의 학술회의를 통하여 세 분의 대략적인 삶과 활동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 발표와 토론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의 구체적인 행적과 활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의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대한국민군(사령관 안무)의 창설 시기

이숙화 박사의 논문 「대한국민군 사령관 안무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은 안무의 가계 및 성장과정으로부터 대한국민회 간부 시절(국민회 제2남부지방회 경호부장, 군무위원회 위원장, 대한국민군 사령관), 1920년의 항일무장투쟁, 러시아로의 이동 이후 겪은 자유시 참변, 북간도로 귀환 후의 고려공산당 활동 등을 다룬 글이다.

토론자인 장세윤 박사가 제기한 중요한 쟁점은 대한국민회의 무장조직인 ‘대한국민군(사령부)’의 창설 시기에 관한 것이다. 토론자는 선행연구들(김춘선, 김경준, 신용하, 장세윤)의 대부분이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봉오동 전투 이전에 ‘대한국민군’이 창설되었다고 하면서, 발표자가 주장하는바 1920년 8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대한국민군’의 창설은 오히려 “재편 혹은 개편 혹은 확대강화”라고 보아야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2014년에 간행한 「홍범도장군」에서 대한국민군이 1920년 8월에 창설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고, 오세호 박사 역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1920년 독립전쟁』 시기 독립군들의 동향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6) 이숙화 박사 역시 이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주장의 사료적 근거는 대한국민회 지방대표자회의(1920. 8. 9. ~ 12)의 회의록이다.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사항에 따르면, 대회 개최 중인 8월 10일에 북로독군부에 소속되어 있던 제3, 제4중대가 그동안 북로독군부 부장 최진동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 소식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군사기관을 조직하

고 명칭을 대한국민군사령부라 하고” 사령장관으로 안무를 선정하였다. 대한국민군사령부 창설 이전 시기에 대한국민회는 그동안 별도의 독자적인 군사령부를 두지 않고 노령으로부터 들어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후원하여 창설한 ‘북로정일제1사령부’로 하여금 군사 조직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신에 국민회는 ‘군무위원회’ 형태로 무장투쟁에 필요한 제반준비(병정 모집, 무기 구입, 식량, 군자금 모집, 사관학교 설립)를 하고 있었다. 1920년 8월 대한국민군사령부이라는 독자적인 군사기관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회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물론 최진동의 대한군무독부와도 관계를 끊고 결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3단연합이 분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밖에 장세윤 박사는 오랫동안 연합관계를 가졌던 홍범도와 안무의 관계를 “조직이나 국내외 정세, 인적 네트워크(연계망) 차원에서” 평가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안무의 치료거부로 인한 순국문제”에 대한 확실한 고증의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참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안무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참전 여부의 문제

이숙화 박사는 안무가 봉오동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였다. 안무의 봉오동전투 참전 여부는 실제 전투행위 참여와 관련 없이 봉오동전투를 수행한 군사조직인 북로독군부 부장(최진동)의 부관으로서 직접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 이는 김희영, 이종학, 김재규 등 당시 봉오골에 참전하였던 사람들의 회상기를 비롯하여 「독립신문」이나 일제첩보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에서 확인되는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숙화 박사는 안무가 청산리전투 참전하지 않았다는 오세호 박사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안무의 청산리전투 참전설을 제기했다. 발표자는 청산리전투와 관련해서 안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첩보자료들을 활용하여 참전설을 주장하고 있는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안무의 국민군(속칭 ‘국민회군’)에서 모연대 대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희영은 봉오동전투와 그 이후 밀산, 이만을 거쳐 자유시로 들어가는 과정과 자유시참변에 관하여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으면서도 청산리전투 참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안무 군대의 본진에서 떨어진 바 없는 김희영이 청산리전투에 참전했다면 필히 회상기에다 썼을 것이다.

안무와 최진동의 '대한독립단' 참여 문제

이숙화 박사는 만주의 독립군부대들이 러시아 연해주 이만에서 '독립군대회'를 열어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였는데, 안무나 최진동의 부대 역시 이 '대한독립단'에 참여하였다고 파악했다. 북만주 밀산에서 간도의 독립군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다는 이른바 '정설'과 결성 장소를 달리하지만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대한독립군단' 조직의 '정설'로 복귀한 해석이다.



이 소위 '정설'은 필자와 윤상원 교수에 의해서 그 오류가 밝혀진바 있다. '대한독립군단 조직설'은 간도 독립군부대들의 자유시로의 이동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김승빈, 김희영, 김재규 등 항일무장투쟁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일본첩보자료의 내용을 과신한 결과이다. 이들 간도의 독립군부대들은 일본군의 간도 침략과 그에 따른 청산리전투 전후시기에 각기 다른 대책과 행로를 취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노령행은 밀산-이만-자유시라는 같은 노선을 밟았지만, 이 자유시에 도착한 시기가 각각 다르다. 최진동 부대(총군부)와 안무부대(국민군)는 각각 1월말, 2월초에, 그리고 서로정서(교성대, 의용대), 북로군정서와 통합한 홍범도 부대의 통합조직인 통의부(대한독립군)는 3월 중순에야 자유시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자유시참변이후 안무의 활동

자유시참변이후 고려혁명군에 소속되어 이르쿠츠크로 이동한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 즉 홍범도, 최진동, 이청천, 안

무, 허근 등 5명의 '의병대 영수'들을 비롯한 독립군 장교들의 행적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안무는 흥미롭게도 네 명의 지도자와는 다르게 '러시아 감옥에서 탈주하여' 11월 하순에 북간도로 귀환하였다.

북간도로의 귀환 이후 안무가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와 관련을 갖고 구춘선을 비롯한 국민회 간부들이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계열의 '고려공산당중령총회' 조직에 앞장섰다는 발표자의 서술 부분은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려공산당 중령총회'는 1922년 가을의 고려공산당 연합대회를 앞두고 조직 강화에 나선 김하구 등 상해파 계열 인사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안무를 비롯하여 전국민회 총회장 구춘선 등의 국민회 간부들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봉오동전투 이전 최진동이 수행한 온성전투

김경준 선생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북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는 2006년 중국 연변의 학자 3인이 공동집필한 「최진동장군」(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을 비롯하여 그동안 연구자들에 의해서 활용되지 않은 신민단 간부 박승길의 구술기록(박원일 대필)인 「간도독립군약사」(「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자료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를 적극 활용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발표에서는 최진동이 러시아로 이동하고 자유시참변을 거쳐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극동민족대회)에 참여한 후 1923년에 북간도로 귀환하기까지 러시아에서의 행적과 활동을 다루지 않고 있다.

발표자는 3월 15일~26일에 걸쳐 전개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의 온성 기습전투를 크게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온성지역에서 전개된 일련의 전투에 '풍리동 전투'(1920.3.15.), '향당동 전투', '풍서동 전투', '남양동(하탄동)전투'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발표논문의 뒷부분에서는 1923년 러시아로부터 북간도로 귀환한 이후 말년까지 시기에 최진동이 보여준 논쟁적인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전기「최진동」인용상의 문제

주미희 선생은 토론에서 최진동 일가가 봉오동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이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최진동이 "농경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봉오동 일대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에서 그가 항일무장투쟁에 뜻을 두고 봉오동을 군사기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뜻을 품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봉오동 일대는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이른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인 여러 조건들로 인하여 군사기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또한 발표자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저서 「최진동」에서 서술하고 있는 최진동과 의친왕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국내 탈출을 기도한 의친왕을 안동에서 만난 후 무장단체 조직을 약속했다고 소개한 점 등)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로 크게 활용하고 있는 「최진동」을 신중하게 인용할 필요성을 조언한 것이다.

봉오동전투 연구의 문제

토론자는 봉오동전투 이후 홍범도와 최진동의 갈등에 대하여 최진동의 북로독군부 개편과 연관된 세력다툼으로 보는 발표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을 상해임시정부가 추진했던 독립군부대의 통합문제라 보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에서 "봉오동전투=홍범도"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봉오동전투=최진동과 형제들"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봉오동 전투를 누가 지휘했는가" 하는 문제에 집착한 경향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의 봉오동전투에 관한 연구가 누구의 공이 큰가하는 특정인물에 대한 평가에 집착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라 할 수 있다.

봉오동전투 직전인 1920년 5월 19일에 성립한 '3단연합'에 참가한 대한국민회, 대한독립군, 대한군무도독부 등 3개 단체의 강점과 약점을 비롯한 특성, 삼단연합으로 출범한 대한북로독군부의 조직 체계와 주요 간부들 및 그들이 맡았던 직책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군부 부장 최진동, 부관 안무, 사령관 홍범도, 부관 주건, 참모 이병채, 군무국장 이원 등을 비롯하여 장교들과 일반 병사들을 포함한 참전 인물들에 관한 연구도 향후의 과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3단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봉오동전투에 참전한 신민단 소속 간부와 병사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다. 외군부(외군단)에서 활동했던 김재규의 회상 등에서 서술되고 있는바 외군부 등의 봉오동전투 참여부분도 검토해야할 쟁점이다.

최진동의 이른바 '친일협력' 문제

최진동과 관련하여 매우 논쟁적인 것이 이른바 그의 '친일협력' 문제이다. 우선 최진동은 1924년 9월 봉직전쟁(奉直戰爭) 당시 오패부(吳佩孚)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장작림 군벌측에 체포되어 1924년~26년의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본총영사관에 들러 과거의 항일운동 경력에 관하여 "늪우치고 근신하며 오로지 기업에 힘쓸 것"과 "옛 부하들을 불러 오로지 농업에 종사케 할 것"이라며 관대한 조치를 바라며 '귀순 신고'를 하게 되고 일제 당국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조치를 내렸다. 토론자가 표현한 바, "무장독립운동을 하던 최진동이 필부의 조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과거 급진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경력 때문에 '귀순 신고' 이후 최진동의 삶이 결코 평범한 범부와 같을 수는 없었고, 일제당국에 의하여 잠재적인 활용(포섭)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진동이 사망 5개월 전 항일운동 참여자들의 귀순공작을 목적으로한 관동군 위촉의 선무부장직을 맡아 수행했다고 하는 "친일협력적 행적"의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확인한 바, 최진동의 "친일 협력"을 수용한 배경과 계기, 선무부장으로서의 실제 활동 여부와 결과를 둘러싸고 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국내 최초로 단독주제로 소개된 박경철

한 블라디슬라프 빅토로비치 선생의 '대한독립군 참모 박경철의 삶과 항일무장투쟁'은 국내 학계에서 박경철에 관한 최초의 발표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간도 지역의 민족운동이나 노령 연해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루는 논문이나 저서에서 그의 이름이 간혹 언급되기는 했지만 박경철을 단독 주제로 한 발표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한 블라디슬라프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 수청지방(수찬지역, 현재의 빨찌산스크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던 수청의병대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한창걸의 동생인 한성걸의 손자이다. 한선생은 한창걸·한성걸·한알렉산드르 3형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하면서 한창걸의 수청의병대(빨찌산부대)에서 대대장으로서 군대를 직접 지휘했던 박경철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측 자료들에 크게 의존한 관계로 한선생의 글은 박경철의 활동 가운데서도 연해주 수청지역에서의 무장활동과 시베리아내전 후 집단농장(콜호즈) 조직, 중학교에서의 화학·물리교사와 교장으로서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보낸 박



경철의 말년에 관한 서술 부분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했으나 “혁명의 조국” 소련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노 혁명가의 고독과 회한을 잘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경철과 재혼한 후 말년을 함께한 부인 박순애의 첫 남편이 홍범도의 둘째 아들 홍용환을 보살피고 길러준 최병준 선생의 둘째아들 최찬식(최창식)이라는 점이다.

교육자, 혁명가, 군지휘자로서의 박경철

러시아어로 된 박경철의 자서전과 일제측 첩보를 종합하면, 박경철은 평북 의주 빈농 출신으로 서울에서 상동청년학교를 졸업하였는데(1909년) 수리에 정통하고 중국사와 한문에 능통하였다. 강제병합이후 해외로 망명한 후 러시아 아무르강 하구의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니향)와 북간도의 명동학교 등에서 오랫동안 교사로서 교육과 청년운동에 종사했다. 1910년대 북간도의 대표적인 한인단체인 간민회와 비밀결사인 철혈광복단에 가입하였고 3·1운동 당시 북간도의 만세시위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3·1운동 이후 무기 구입등 임무를 띠고 연해주로 파견되기도 하고 1919년 가을에는 북간도 국민회의 파견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참여하여 참모로 활약했다.

1920년 중반, 특히 봉오동전투 전후시기의 박경철의 행적과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다. 토론자 이완종 선생이 질문한 바 봉오동전투 이후 박경철이 홍범도부대와 헤어져 1920년 11월 러시아로 이동한 배경과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박경철의 봉오동전투 참여 여부도 확실치 않다. 신민단 단장 김규면은 박경철이 국민회의 파견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참모로 갔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한 달만에 떨어져 나왔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일제 첩보기록에는 북로독군부 간부 명단에서 박경철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홍범도의 북로정일제1사령부의 참모부장 이병채의 부관(또는 부장)으로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 자료를 통해

서 확인된바 박경철은 청산리전투 전후에 1920년 여름 훈춘(琿春)에 기반을 둔 신민단의 일부 간부들과 같이 연해주의 수청지방으로 이동하여 수청의병대의 지휘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남은 과제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장세윤 선생이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안무가 참석했다는 설에 의문을 제기하여 간략하게 논의되었지만, 안무가 대한국민군 대표로 참석한 국민대표회의에서의 활동에 관하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무와 마찬가지로 박경철 역시 국민대표회의에 수청군대 대표로 참석하여 이청천, 김경천 등 군사지도자들과 함께 ‘군인구락부’를 결성하여 활약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기대하였지만 충족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은 홍범도와 안무, 최진동, 박경철 세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내년에도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기획 의 세 번째 학술회의의 주인공으로 세 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의병들”이라는 제목으로 홍범도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의 시나리오를 썼던 고려극장의 태장춘 선생인데, 내년에 기획되고 있는 고려극장의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고려극장의 역사도 함께 다루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작년 홍범도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기까지 홍범도의 분묘를 잘 보존·관리해온 두 분을 발표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1951년 홍범도장군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한 이인섭 선생과 홍범도장군 서거 40주년을 기념하여 홍범도장군추모비건립추진회를 조직하여 홍범도장군의 반신청동상과 추모비를 중앙묘지에 건립한 레닌기치 부주필 김국천 선생이다. 한글신문 「레닌기치」의 역사도 다룰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학술회의 개최 경과 보고

학술회의 개최 경과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개요

- 홍범도 장군 관련 학술 발표와 세미나는 2005년 2월 25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창립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기념사업회 창립 당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무장투쟁에 대한 연구활동이 긴요하여 홍범도 장군 연구 학자 중 반병률 교수와 정세윤 박사, 그리고 박환 교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하면서 학술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 창립하던 해, 봉오동전투 전승 85주년을 맞이하여 2005년 6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장세윤 당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이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강의하면서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 창립 이후 기념사업이 침체되어 정상적인 운영과 학술연구가 어려워 2010년 7월, 기념사업회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연구활동을 심화시켰다.
- 학술회의의 근거는 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사업)에 따른 것이며, ①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 업적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②홍범도 장군의 애국 애족 사상을 연구하고 조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독립 운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 1980년, 1990년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실태

-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던 2000년대 이전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진하였다. 8·15해방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진영논리가 첨예화되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반공이 국시가 된 상황에서 일부 극우적인 인사들이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오해하여 장군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이 되었다.
- 여기에는 독립전쟁의 업적을 독점하려는 일부 세력의 음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저서 “우동불”에서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만 보면 도망간다고 비겁하다고 비하했다. 치고 빠지는 유격전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또한 봉오동전투는 홍범도가 지휘하고, 청산리전투는 김좌진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산리 여러 전투 중 완루구 전투와 고동하 전투는 홍범도 부대가 싸웠고, 백운평, 천수평, 만기구 전투는 김좌진 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어랑촌, 천보산 전투는 두 부대가 함께 싸운 것이다.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 부대가 폐퇴하는 상황에서 홍 장군 부대가 전세를 뒤집은 것이다.
-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홍 장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학자가 신용하 교수이다. 신 교수는 1985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독립군의 청산리 독립전쟁의 연구”에 대한 논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소상히 기술하면서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앞서 1984년 “청산리 전투와 홍범도 장군”(신동아 9월호), 1985년 “재조명해본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신동아 12월호), 1986년 “홍범도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한국학보 제43집)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용하 교수는 1988년 단국대학교 동양학 18집 “대한신민단 독립군 연구”에서 봉오동전투에 대한 상보를 투고했었다.
- 중국 연변대학교의 김춘선 교수는 1991년 10월 제4회 한국 민족운동사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1920년대 한민족 무장독립운동 연구를 통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중심은 홍범도 장군”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헬싱키대학교 고무송 교수는 1988년 7월 1일자로 동아일보에 홍범도 연구 자료를 공개하였고, 1990년 “쏘련의 한인들”이란 책을 이론과 실천사를 통해 발간하였다.
-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에 1965년 10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124회에 걸쳐 김세일 작가가 장편 소설 홍범도를 연재했고, 1990년 제3문학사에서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가 출간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성화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1990년 러시아,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후에 우리 학자들과 관련 인사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장세운 박사는 1991년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 무장투쟁”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집에 게재하고,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에 홍범도 장군 편이 발행되었다.

○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 연구 활성화

- 2005년 6월 서울역사박물관, 봉오동전투 기념행사에서 장세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의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의” 강연을 시작으로,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홍범도 장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40편의 논문을 발표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술회의 관련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움

- 발표 논문 부문별 분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대첩 관련 논문

- 봉오동 전투 전승 90주년의 의미(장세운, 2010)
-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봉오동 전투(오정윤 명지대 교수, 2010년)
- 봉오동 전투의 실상과 역사적 의의(장세운, 2011년)
- 봉오동전투 전승의 역사적 의의(박환 수원대 교수, 2012년)
-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2014년)
-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윤상원 전북대 교수, 2015년)
-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중국의 시각(최후택 연변대 교수, 2015년)

- 봉오동,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의 의의와 역사 인식(김용달, 독립운동사연구소장, 장세운, 이상훈 육사교수, 2019년)
-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이상훈, 2020년)
- 청산리 전투 전후 독립군 단체들의 동향(윤상원, 2020년)

무장투쟁과 홍범도 장군

- 홍범도 항일투쟁의 이념적 배경(김동환 국학연구소, 2011년)
- 무장투쟁 정신 계승과 통일문제(장치순 중앙대 교수, 2011년)
- 3·1운동이후 만주 독립군의 형성과 홍범도 독립군(장석홍 국민대 교수, 2012년)
-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적 의의(김주용 독립운동사연구소, 2012년)
-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전략전술과 유격전(서인한 인하대 겸임교수, 2013년)
- 홍범도 장군의 의병투쟁이 항일무장투쟁에 미치는 영향(심철기 연세대 연구교수, 2014년)
-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윤상원, 2015년)
- 무장투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신주백 연세대 연구교수, 2015년)

홍범도 장군 관련 문학작품 조명

- 역사소설 “홍범도”의 역사성(윤상원, 2017년)
- 희곡 “홍범도”의 역사 수용과 인문 형상화 양상(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 극작가, 2017년)
- 홍범도를 매체로 한 체제 옹호 시사-김세일의 소설(임현모 군산대학 교수, 2017년)
-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고찰(김현주 대구 가톨릭대학 교수,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생애

-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 참변(윤상원, 2016년)
- 강제 이주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착 활동(홍웅호 동국대 연구교수, 2016년)
- 러시아 동포사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식과 추모사업(최영근, 2016년)
- 중국 밀산에서의 행적과 독립운동(맹고군 전 밀산 부시장, 2016년)

홍범도 장군 동지들에 대한 연구

- 송암 이응수와 봉오동 전투(김국환 국학연구소, 2010년)
- 연해주 한인 의병장 한창걸의 군사활동(한 블라디슬라브 전 고려신문 기자, 2013년)
- 함경도 지역의 의병과 차도선의 활동(김항기 독립기념관, 2021년)
- 항일독립운동가 최병준의 삶과 활동(임성욱 한국외국어대, 2021년)
- 동지 허근, 이병채의 활동과 홍범도(윤상원, 2021년)
- 대한국민군 사령관 안무의 생애와 항일무장 투쟁(이숙화 한국외대, 2022년)
-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김경준 외대 박사과정, 2022년)
- 대한 독립군 참모 박경철의 삶과 항일무장투쟁(한 블라디슬라프, 2022년)

발표 논문 관련 특이 사항

- 논문 발표 빈도가 많은 학자
 - 반병률(전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홍범도아카데미 원장), 장세윤(홍범도아카데미 전문위원), 윤상원(전북대 교수), 김주영(독립기념관)
- 외국인 참여자
 -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대학교 국제한국센터 대표(2013년), 한 블라디슬라프 전 고려신문 기자(2013년, 2022년) 최후택 연변대학 교수(2015년), 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 극작가(귀화) (2016년, 2017년), 맹고군 흑룡강성 밀산 부시장 (2016년)

앞으로의 과제

- 홍범도 아카데미의 활성화 방안 강구
 - 2022년 6월 21일 창립된 아카데미 전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미진한 분야 발굴 연구
 - 연구 뿐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에 대한 국민적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외국 연구자와 상호 왕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결과 교류 추진
- 특히 국내에서 진영논리와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홍범도 장군을 사상적으로 음해, 폄하하는 세력과는 과감하게 대처
-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에 대한 청소년 및 시민교육 기회 확대 - 특히 TV 매체 활동 방안 강구

책소개

독립운동연구자료의 지평 확장 : 「간도출병사」 뒤집어 읽기

김연옥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활동거점이 국외로 옮겨가면서 독립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한층 굳센 결집력과 작전을 구사하여 독립수호 의지를 천명하며 임시 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독립전쟁의 원년 결의의 총화가 바로 ‘봉오동·청산리 전투’였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독립전쟁 제1회전’ 봉오동 전투에 이어, ‘독립전쟁 제2회전’인 청산리 대첩은 훨씬 본격적이고 넓은 범위에 걸친 ‘장기전’이었다. 일반적으로 청산리 대첩은 10월 21일에서 26일까지 약 6일간 청산리-어랑촌-고동 하곡 주변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총칭한다. 그 중에서도 백운평 전투(10.21) → 완루구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10.22) → 천보산 전투(10.24) → 고동하(곡) 전투(10.26)가 대표적인 6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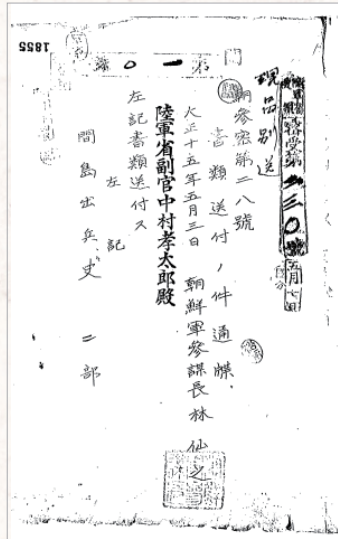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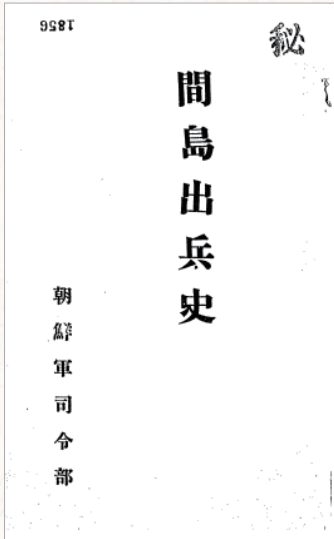
봉오동·청산리전투만으로는 1920년 6월 초와 10월 말 두 차례에 걸친 수 일간의 전투를 칭하는 단기전을 연상케 하지만, ‘간도출병’으로 표현되는 일본군의 간도침공은 사실상 중·장기전이었고 광범위했다.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에게 패배 당한 일본군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재수립해 간도 일대의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해 쳐들어왔다. 즉, 청산리전투에 맞대응한 일본군의 전략을 ‘간도출병’이었다고 보면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간도 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에서 1921년 5월까지 약 8개월 간 진행되었고, 세부적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주로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 활동 근거지인 학교와 교회에 대한 탄압시기, ②11월 21일에서 12월 16일까지를 주력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한 인사회를 반복적으로 수색하는 시기, ③12월 17일부터 이듬해 5월 9일 일본군이 철수하는 시기까지를 간도지역의 새

로운 질서를 수립한 기간이다. 즉, 우리 독립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산발적 전투가 지속되었던 시기만 해도, 청산리 대첩의 10월 말로 국한되지 않고, 12월 중하순까지도 이어졌던 중·장기전이였다. 1~2개월 내에 독립군과 그 주둔지 및 근거지를 ‘섬멸’시키려 했던 일본군의 초기 목표와는 달리, 험준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신출귀몰한 독립군의 매복 및 교란, 기습 작전에 속절없이 당하며 10월 이상씩 밀림 수색 작전에 기력을 소진해야 했던 일본군의 실태를 「간도출병사」에서 “그들(독립군 지칭)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자조섞인 어투로 자인(自認)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구절일 것이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 결의의 총력을 보여준 독립전쟁 봉오동·청산리전투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연구되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간도출병사(間島出兵史)」(조선군사령부 편, 김연옥 번역, 경인문화사, 2019) 해설을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에 어떻게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1920년 1월 17일 발행된 독립신문 38호. 국민개병의 원칙을 밝히면서 1920년 한해를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표방함.



우선 책 제목에서 간도침공이 아닌 '간도출병'으로 표기 한 것에서 유추되듯이, 이 책은 철저히 침공의 주체인 일본 군의 시각 그대로를 번역한 책이다. 일본군 내부의 논의와 시각 그대로를 먼저 아는 것이 비판적 검토에 선행되는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고, 의역(意譯, 풀어쓰기)이 아닌 직역(直譯)에 가깝게 번역했다. 따라서 편하게 읽히는 일반 대중서는 아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사료이자 전문서이다. 독립전쟁 원년에서 100년 째가 되는 2020년 시점에는 일본군의 간도 침공 계획과 작전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문 그대로 접하며, 후학들의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업이었다.¹⁾

그렇다면 「간도출병사」는 누가 집필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편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까? 먼저 「간도출병사」의 원(原)사료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jacar.archives.go.jp)에서 공개하고 있는 <레퍼런스 코드 C03022770200 : 間島出兵史送付の件> 자료에 해당한다. 분량은 PDF 페이지로 493쪽에 달한다. 참고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일본의 공문서를 집결한 아카이브의 하나로, 국립공문서관, 외무성외교사료관, 방위성방위연구소 등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간도출병사」의 저자는 누구이며, 어떤 성격의 보고서일까? 「간도출병사」 원문의 첫 부분을 참고 그림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조선군참모장 하야시 나리유키(林仙之²⁾)가 육군성 부관(副官)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³⁾)에

게 1926년(大正15) 5월 3일 송부(送付)한 참고 자료가 「간도출병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성 주체가 조선군사령부였음을, 상단의 '비(秘)' 글자를 통해서 육군 내부 '비밀문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보낸 시점은 1926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1920~1921년 작전 수행 당시의 전보,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1920년 북간도에서의 '독립전쟁' 전황(戰況)을 재현해내는 데 충분히 의미있는 '1급사료'인 것이다. 「간도출병사」는 특히 청산리대첩을 재현해 내는 데 활용가치가 높다. 1920년 6월초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후 일본군들이 화력을 집중해 '불령선인초토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그 과정들이 자세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출병 전정황>, <제2장 작전행동>, <제3장 선전활동 및 교섭사항>, <제4장 출병의 효과>, <제5장 주력 철퇴 후의 정황>, <제6장 장래에 대한 소견 및 참고사항>, <부록과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최초 작전 계획 하달 단계에서부터 실제 투입 시 토벌대의 행동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작전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투를 대비한 제언(提言) 및 일본군 내부의 전훈(戰訓)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점에 주의가 필요할까? 첫째, 전과(戰果)는 과장하고, 피해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쉬운 군

(軍) 기록의 특성을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사망자 수에 대한 논란이다. 일본군의 성과가 되는 독립군 희생자 수는 과장되게, 일본군의 약점이 되는 일본군 사상자 수는 축소 보고했을 경향을 감안하면, 문서상에 '사망자 ○명'으로 표기된 기록을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전투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인원 외에 '부상자'로 후송되어 추후 사망한 경우, 이들은 사실상 '청산리전투 사망자'에 포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도출병사」는 이른바 '전투상보(戰鬪詳報)'처럼 지역별·부대별·전투별 상세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한 자료를 묶은 것이 아닌, 전투 보고서에 기반해 「간도출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재정리한 보고서이므로, '전투상보'에 비하면 개설서 같은 성격이 강하다. 즉, 「간도출병사」에만 의존해서는 특정 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는 데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암촌 학살 사례와 같은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사료 제시는 최소화하거나 논의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간도출병사」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1920년 전후 간도 일대의 정황을 조사할 단서를 찾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학살 현장의 생생한 보고와 항의 문서의 일부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 문서를 근거로 확대해서 찾아나가면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 간도침공으로 인한 한인촌 학살 실태와 참변의 만행이 국제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해 일본측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던 측면을 실증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하는 자료임은 분명하지만, 청산리대첩의 작전 계획 및 작전 수정과정, 교전 경과 및 결과 등 전투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기존의 한국측 사료와 교차 검증 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사료이다. 특히 <부록 지도>를 「간도출병사」 사료 본문 내용과 지도를 연결지어 활용하면 군사사적 연구 지평을 넓히는데 유익할 것이다. 참고로 부록지도

[附圖]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일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부도(附圖) 제1 간도지방 불령선인 개황도>, <부도 제4 불령선인 토벌계획 요도>, <부도 제5 훈춘-간도토벌대 분산 배치요도>, <부도 제6 히가시(東) 지대 전투 개황도(1920년 10월 하순 시점)>, <부도 제12 초토부대 행동 개황도(1920년 10월~12월)>. 위 지도 중에서 <부도 제6 히가시 지대 전투 개황도>의 경우, <부도 제12> 및 초기 작전 계획과 비교해서 보면, 청산리 협곡 주변에 독립군 주력 부대가 집결해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일본군이 뒤늦게 작성한 상세 작전지도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처럼 간도 지역 독립군의 분포 실태, 일본군의 출병 상황과 전략 추이를 파악하는 데 「간도출병사」 사료 본문 내용과 지도를 연결지어 활용하면 일본군의 작전지도이지만, 역으로 독립군의 군사전략의 실태를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다. 지도 속에 보이는 '흥미로운' 발견거리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조선군사령부(김연옥 역), 「간도출병사」, 경인문화사, 2019
- 김연옥, 「일본군의 「간도출병」 전략과 실태」, 「일본역사연구」 50, 2019
- 김연옥, 「1920년 장암촌 학살 재검토」, 「일본학」 52, 2020
- 김연옥, 「1920년 간도참변 실태와 특징 -일본군이 작성한 사상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87, 2021

1) 이 글은 「한국사시민강좌」 28집(일조각, 2001)년에 게재되었던 「한국인의 러시아이주사 :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수정한 것이다. 같은 글이 필자의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한울아카데미, 2020)에도 실려있다. 2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한다.

2) 1877.1.5~1944.5.31. 최종계급은 일본 육군 대장(大將).

3) 1881.8.28~1947.8.29. 최종계급은 일본 육군 대장(大將). 육군대신 역임.

편집자 주 기념사업회 이사와 후원회원 15명이 10월 28일~11월 3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크즐오르다에 역사탐방을 다녀온 소감을 소식지에 2회에 걸쳐 실을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 탐방기

카자흐스탄 역사탐방기

5박 7일(2022. 10. 28 - 11. 3)



이명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前 평남지사)



방문 첫째 날(2022. 10. 28.)

오늘은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분들과 5박 7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역사 탐방을 떠나는 날이다. 일찍 서둘렀더니 오전 8시 10분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커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시며 기다렸다. 9시에 일행과 만나 출국 수속을 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아스티나 항공 탑승구에서 기다렸다. 카자흐스탄 방문이 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가 나로서는 첫 번째 여행이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아시아 하면 유목민들과 차마고도를 연상하게 되어 현대문명의 세계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더욱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진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방문하는 목적은 지난해 8.15일을 기해 장군의 유해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모셔온 지 일 년이 지나 장군의 옛 묘역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의 공원화 사업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아울러 유해봉환 후 고려인, 카자흐스탄인 그리고 한국이 함께 장군의 백전백승의 독립군 활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몇 가지 후속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에 앞서 었 그제 10월 25일에는 장군의 순국 79주기 추도식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우리 기념사업회 주최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졌다. 우원식 이사장을 대신하여 황원섭 부이사장께서 홍범도 장군을 진심으로 흠모하는 추도사를 하셨다. 특히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지부에 오광영 이사를 비롯한 회원들이 행사 준비를 잘 해주었다.

첫 기착지인 알마티는 인구 2백만 정도의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이며 대다수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모여 사는 곳이다. 알마티와 한국과의 시차는 3시간으로 거리 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종적으로는 몽골인 계통으로 우리 한민족과는 유사한 동양인이다. 무엇보다도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 거주하던 17만 명의 고려인 강제 이주자 중에 약 10만 명이 이곳 카자흐스탄에 이주하여 고단했던 정착 생활을 했던 곳이다. 장군님도 강제로 이주당하여 생애 마지막 6년간을 이곳에서 생활하시며 고려인

사회에 정신적 지주로서 지내신 곳이다. 현지 고려인들은 물론 장군의 독립전쟁 정신을 흠모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나라이기에 심정적으로는 우리와는 가까운 나라이다. 비행시간 6시간 만에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였다. 카자흐스탄 최대의 국제공항임에도 공항의 규모나 시설은 우리나라 국내선 공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았다. 출국장으로 나가니 알마티 박내천 총영사와 태경곤 영사 그리고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영접을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한고려인협회 노송달 회장과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부장인 박 드미트리 이사도 마중을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숙소인 천산그랜드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 6시 30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초청 만찬 모임 장소인 고려인회관으로 갔다. 고려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고려인회관 식당에서 환영 저녁 모임을 가졌다. 오늘 저녁 모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신임회장인 신유리 게르마노비치 회장, 알마티 고려인협회 신안드레이 회장,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자손재단 회장이며 최재형 지사의 증손녀인 박타티아나 회장, 카자흐스탄 국립극장 총책임자인 니 류보프 총감독, 고려인 사회 원로인 김로만 전 하원의원, 고려일보 김상욱 편집인 등 고려인협회 주요 인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환영해주었다. 환영식에서 신 유리 회장은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하였고 카자흐스탄 체류 중에 계획된 일 모두 잘 이루기를 기원한다는 덕담을 하였다.

이어서 우원식 이사장께서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장군님을 고국으로 봉환한 후 1년 만에 장군님의 묘역을 참배하고 묘역의 관리상태를 살펴 보러왔으며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와 대한민국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데 우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였다. 아울러 장군님의 유해봉환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어 고려인 참석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개에 이어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분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만찬은 진수성찬이었다. 말고기와 양고기 등 한국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음식

이 나왔다. 나는 처음으로 말고기를 먹었다. 얇게 썰은 말고기 훈제 회는 정말 일품이었다. 훈제연어와 거의 같은 맛이였다. 고기 살도 부드러웠다. 이곳 카자흐스탄에서는 말을 식용으로 기르기 때문에 육질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고 한다.

방문 둘째 날(2022. 10. 29.)

아침 6시쯤 일어나 호텔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였다. 6시 40분 아침을 먹었다. 오늘 첫 일정은 고려극장을 방문하는 일이다. 오전 8시 50분쯤에 고려극장을 방문하였다. 고려극장은 현재는 카자흐스탄 국립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극장 총감독과 극장장을 모두 고려인이 맡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인 구락부 예술단이 설립한 예술단체와 극장을 1937년 강제 이주 시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여 고려인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공연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통틀어 현존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공연단체 중 가장 오래된 공연단체이며 극장이다. 역사성으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한민족의 문화자산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예술 아카데미 명예교수로 있는 니 류보프 아부구스토브나 총감독의 안내로 고려극장을 구경하였다. 입구에는 우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곳곳에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총감독 사무실에서 오차를 한잔 켜는 후에 강당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한-카자흐스탄 간의 현재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공주대학교와 합동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원식 이사장님이 축사를 한 후 우리 일행은 다음 일정 관계로 세미나 진행 중에 나왔다. 이어 12시 30분에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에서 거행되는 제83주년 순국선열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순국선열기념의 날은 해마다 11월 17일에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들의 방문을 기해 일자를 조정하여 개최하는 거라 하였다. 오늘 행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자손재단 주최로 개최되었다. 김상욱 사회자가 이번 행사에 특별히 참석한 고국에서 온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일행을 소개하여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우원식 이사장께서 기념사를 하였다. 특별히 우원식 이사장께서는 애국

지사인 김한 선생이 외조부이심을 말씀하시며 본인도 고려인의 후예라고 이야기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오늘 행사에는 이동휘, 최재형, 황운정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알마티 박내천 총영사 그리고 2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참석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에 독립유공자자손재단의 초대 오찬을 함께 했다. 넓은 홀에 40여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식사를 했다. 카자흐스탄 음식과 한식이 함께 나와 푸짐한 식사를 하였다. 식사 중에 독립지사인 황운정 선생의 아들인 황마이 문제노비치 선생이 빨치산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90이 넘은 연세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유쾌하게 말씀하시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셨다. 황 선생은 스피드스케이팅 분야에 지도자로서 올림픽 선수들을 지도했다고 한다.

저녁은 광주 출신 교포가 운영하는 명가라는 식당에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자손재단 초청으로 만찬을 함께 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알마티 고려인협회 회장인 신안드레이 회장이 운영하는 플래너스라는 맥주홀에 갔다. 1, 2층으로 된 굉장히 큰 홀이었다. 독일 생맥주를 파는 곳인데 알마티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1, 2층 홀에 가득 찰 정도로 성황이었다. 고려인이 이곳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다. 저녁 12시 다 되어 호텔에 들어왔다.

방문 셋째 날(2022. 10. 30.)

어젯밤에 자리에 누워 뉴스를 잠깐 보니 헬로윈축제를 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막 뉴스가 떴다. 사상자가 몇십 명쯤 된다고 하여 걱정이었다. 새벽 5시 30분경에 일어났다. 이태원 소식이 궁금하여 뉴스를 보니 이곳 시각 5시 30분 경에 벌써 사망자가 149명이나 된다고 보도되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걱정이다. 헬로윈 축제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일텐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7시 30분에 호텔 식당에 갔다. 일행 몇 분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표정이 무겁다. 우원식 이사장님은 일정을 앞당겨 미리 귀국해야 되는지 고심이 깊은 것 같았다. 아침을 먹으며 방학진 이사과 백선엽 장군 등에 대한 친일 행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나와는 친일 문제에 대해 간극이 큼을 느꼈다. 오늘은 크즐오르다로 가는

날이다. 10시 30분에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알마티 공항 가는 길에 있는 28 공원을 구경하러 갔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념 동상을 세운 매우 의미 있는 공원이었다. 28공원의 유래에 대해서 박 드미트리가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28공원이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스크바를 사수하던 반필로프 장교 부대의 놀라운 항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 194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항전하던 반필로프 장교 부대원 1만 명 중 생존한 군인은 겨우 28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목숨을 바친 항전으로 모스크바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원 이름을 28공원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12시 40분쯤에 알마티 국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으로 가는 중에 눈앞에 천산산맥이 병풍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습에 숨이 막힐 정도로 황홀했다. 말로만 듣던 그 천산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카자흐스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천산산맥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맥이라고 한다. 그 옛날 중국인과 아랍인들이 천산산맥 골짜기를 따라 중국에서 서역으로 왕래했으리라. 공항에 도착하니 특별히 우리를 예우하여 귀빈 대합실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하였다. 대기 중에 방학진 이사님이 독립군의 시대적 구분과 특징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였다. 비행시간 2시간 만에 드디어 우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 생을 보낸 크즐오르다에 도착했다. 크즐오르다는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



가 생을 마친 곳이다. 이곳은 192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시이며 1937년 강제이주시 이곳 크즐오르다에 많은 고려인이 정착하여 생활한 곳이다. 이주 당시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들이 설립한 '원동고려사범대학'도 이전하였다. 이후 원동사범대학은 크즐오르다 사범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가 되었다. 크즐오르다 대학은 고려인이 설립한 대학이기에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유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우리 일정에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을 방문하기로 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크즐오르다 대학에 IT 관련 4개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원식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강제 이주 초기에는 연해주에 있던 고려극장을 크즐오르다에 이주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결속하고 우리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극장은 이후 알마티로 이주하여 카자흐스탄 국립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술탄프라자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바로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가 누워계셨던 옛 묘역을 참배하였다. 장군님을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독립유공자후손회 주관으로 매년 10월에 장군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해왔다고 한다. 며칠 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우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도식을 하였기에 현지에 와서 장군님의 옛 묘역에 서 있는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다시 추도식을 이곳 고려인들과 함께 하는 감회가 남달랐다. 오늘 추도식에는 크즐오르다 부지사께서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어 계봉우 지사의 옛 묘역에서도 지사님의 후손과 함께 추모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와 함께 장군님의 옛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추모식을 끝낸 후 홍범도 장군님이 사셨던 마을과 거리를 찾아보았다. 장군님이 고려극장 수직(守職)으로 근무하시면서 매일 고려극장으로 출근하셨다고 하는 거리도 일행과 같이 걸어보았다. 크즐오르다 주 정부에서는 장군님이 출퇴근하셨던 거리를 '홍범도장군거리'로 명명하여 장군님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홍범도장군거리'를 보고 이어 크즐오르다 <우정의 집>으로 갔다. 이곳은 주로 다 민족간에 교류하고 고유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한다. 마침 오늘은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가 주관하는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을 기념하여 고려인 문화축제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우정의 집>에 도착하니 입구에서부터 한복을 입은 고려인들이 우리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복도에 한국 음식을 차려 놓고 먹기를 권하여 모두들 한데 어울려 고려인들이 준비한 떡과 잡채 그리고 고기와 김치, 나물 등을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셨다. 카자흐스탄에서 한복을 입은 고려인들과 우리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음식을 먹으며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열과 문화와 풍습으로 올곧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이제 한국은 옛 풍습과 옛 문화가 무형문화재 형태로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차려 놓은 음식을 맛보고 난 후 회의장으로 가서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우원식 이사장께서 우리 일행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시고 이어 우리 일행을 소개하셨다.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식에 이어 카자흐스탄고려인 협회가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다. 한국의 관혼상제 풍습을 극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았는데 극을 통해 예전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잘 표현해내었다. 화려한 부채춤은 한국의 전문 공연팀 못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히 수석무용수의 춤사위는 프로급이었다. 부채춤은 한국전통무용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김백봉 선생이 안무하여 만든 세계적인 예술작품이다. 김백봉 부채춤이 우리 평안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있어 부채춤을 접할 기회가 많아 부채춤에 대해서는 나름 식견이 있는 편이어서 관심 있게 보았다. 바이올린 연주도 정말 전문 연주자 수준급이었다. 오늘 공연은 단연코 말하건데 결코 동네잔치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잘 표현한 정말로 멋진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에서 준비한 만찬에 참석하였다.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김 엘레나 회장의 초대로 고려인이 운영하는 코리아나 식당에서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김 엘레나 회장이 광산 김씨라고 소개하여 내가 마이크를 잡고 광산 김씨 딸은 보지도 않고 머느리로 데려가는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니 너무 기뻐하였다. 식사를 하며 서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9시쯤 식사를 끝내고 호텔로 왔다.

방문 넷째 날(2022. 10. 31.)

아침 식사를 하고 내 방에 들어와 좀 쉬었다. 좀 쉬다는 게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집합 시간인 9시 40분이 조금 지났다. 서둘러 프런트에 내려가니 일행들은 이미 차를 타고 첫 행선지로 출발한 후였다. 참 난감하였다. 호텔에서 그냥 기다릴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조바심이 나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었다. 오늘 일정은 우원식 이사장님과 몇 분은 크즐오르다 주 정부를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다. 우원식 이사장의 주선으로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주 간에 선진 농업기술 교류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방문에 김관영 전북지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이를 주지사에게 전달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다른 일행은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를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다. 프런트에 있는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크즐오르다 주 정부와 크즐오르다국립대학의 주소를 영문으로 적어달라고 하였다. 시간적으로 주 정부로 가는 것은 늦을 것 같아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으로 가기로 하고 택시 기사에게 적어준 주소로 가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국립대학의 주소가 아니라 전문대학 주소였던 것 같다. 할 수 없이 물어, 물어 미팅 장소로 찾아갔다. 마침 행사가 이미 끝나서 간신히 카리모바 총장과 인사만 나눌 수 있었다. 행사 중에 한동건 사무총장이 우리 일행 중에 이명우 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크즐오르다 대학과 제휴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총동창회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한다. 이어 크즐오르다 주 도서관을 방문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참관하였다. 카자흐스탄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한국은 희망의 땅이며 K-팝에 대한 이들의 인기와 관심은 대단하다고 한다.

점심은 카리모바 총장의 초대로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 내 모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크즐오르다에 IT학과 개설을 책임지고 담당한다고 하여 자랑스럽고 앞으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였다. 점심을 먹고 크즐오르다 공항으로 가서 알마티로 다시 왔다. 천산호텔에 다시 체크인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 고기집에서 우리 일행만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에 대한 소감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였다. 일행 모두 카자흐스탄 방문이 보람이 있었다고 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원식

이사장은 국회 일정 관계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부윤경 이사도 개인적인 일정 관계로 함께 공항으로 갔다.

방문 다섯째 날(2022. 11. 1)

오늘부터 이틀간은 공식 행사는 없고 여유롭게 알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려인 사업체나 단체를 찾아보고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다는 천산을 올라가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 다소 느긋하게 일정이 진행되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방문지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제조업체인 신라인(Shin Line)이다. 신라인 회사는 알마티 고려인협회 회장인 안드레이 신 회장이 1995년에 창업한 회사이다. 신 회장은 알마티에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생맥주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신라인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이 되는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빙과류 회사이다. 공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생산라인과 부대 시설을 돌아보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고려인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이어 채유리 선생이 운영하는 Olympic Land Club이란 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스포츠센터이다. 채유리 선생은 북서 출신으로서 카자흐스탄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훈련시킨 북심지도자 출신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을 역임하였고 상원의원도 역임한 저명인사이다. 마지막으로 Namson Family Studio(남손 예술센터)를 방문하였다. 한국의 문화를 포함하여 클래식 및 현대 공연 예술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곳이다. 무용 연습장과 어린 학생들 성악 연습실을 보았다. 우리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아리랑을 불러주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 전통 사물놀이 연습실을 견학하였다. 팽과리를 치는 여학생이 제법 손놀림이 빠르고 유연한 게 대단해 보였다. 장구와 춤에 대가인 이경철 이사께서 시범으로 장구를 치니 모두가 놀라며 환호성이었다. 이경철 이사 덕분에 우리들의 어깨가 으쓱하였다. 기회가 되면 이경철 이사께서 팀을 구성하여 사물놀이를 지도하러 오겠다고 하였다. 외국에 나오면 한국을 더 생각하듯 고국을 떠나와 멀리 타국에서 이민자로 생활하다 보면 고국의 전통문화 예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곳 고려인들 후세들의 우리 고유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들의 지극한 한국 사랑을 생각하며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들이 부끄러웠다.



방문 여섯째 날(2022. 11. 2.)

오늘은 카자흐스탄 일정 마지막 날이다. 아침 9시에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천산으로 향했다. 드디어 고대하던 천산을 찾아가는 날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천산이라고 한다. 그런 천산을 방문하려면 마음이 들떴다. 우리가 가는 곳은 침불락(Shymbulak)이다. 해발 3,600미터인 침불락 정상은 만년설로 덮인 산이다. 케이블카를 세 번으로 나누어 탄다. 케이블카 주위에는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이 있다. 세 번째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니 바로 눈앞에 침불락 정상이 보인다. 심호흡을 하며 침불락 정상에 기를 길고 깊은 호흡으로 들어 마셨다. 갑자기 침불락 정상의 기운이 온몸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침불락 계곡은 눈사태가 나거나 봄철이 되어 계곡에 쌓여던 눈이 녹으면 홍수가 나서 알마티 시내를 덮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침불락 계곡 아래에 댐을 쌓았다. 그 댐 공사를 직접 지휘한 기술자가 고려인이라고 한다. 자랑스럽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지주대 밑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우리의 자랑스런 박디마트리 이사 레미콘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놀랐다.

침불락 정상을 내려와 알마티 공항 가는 방향에 있는 오이-카라가이 마운트 리조트로 갔다. 스키와 연수원 그리고 레저시설로 사용되는 리조트다. 유크르트 하나를 빌려서 워크숍을 했다. 박디마트리 이사의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 대한 발표와 방학진 이사의 독립군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어 각자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에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5박 7일간의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었다. 워크숍을 끝내고 알마티 공항으로 갔다.

마지막 날(2022. 11. 3.)

오전 1시 20분에 아스티나 KC909 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한숨 자고 나니 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보람 있는 5박 7일간의 카자흐스탄 역사방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며 우리 고려인들의 역사와 삶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카자흐스탄이 이제 아주 가깝게 그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물론 홍범도장군님이 카자흐스탄에 사셨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홍범도 장군님을 매개로 하여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지냈던 초기 정착 생활을 잘 극복하고 끈질긴 한민족의 기질을 살려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이곳에서 중상 이상의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그리고 아름다운 고유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해준 우원식 이사장님과 한동건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디마트리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또한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공식 행사 일정을 함께 하며 지원해준 알마티 박내천 총영사님과 태경곤 영사님께도 감사드린다. 함께 한 우리 기념사회 이사님들 5박 7일 동안 함께 하며 좀 더 가까워졌음에 기쁘고 고맙다. 다만 내가 한 때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여 내 인생 최초로 고문관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잊어주시기 바란다.

카자흐스탄 탐방기

까레이츠의 혼과 얼 고려인 동포에게 드리는 편지



한종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민족의 혼을 부르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은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한과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기쁨 때나 슬플 때나
남녀 노소 구분없이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 그 자체다.



<독립운동의 성지 '연해주'>

연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 옛날

우리 민족의 땅 발해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일제 시대 간도 지역이었던 이곳으로
독립투사들이 모여 들었고,

안중근의사도 이곳에서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후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였으니
연해주야 말로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셈이다.

<까레이스키 아리랑~>

1937년 스탈린은

고려인과 일본인 구별이 어렵고

소련의 국가통합이라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

이른바 까레이스키가 그것이다.

고려인들은 연해주 라지돌리나에서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진 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 우즈베크 등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다.

그러나 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오늘까지 고려인의 혼과 얼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인의 강제 이주 ~
그것은 소련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지만
그 이면엔 일본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원죄가 있지 않았을까?



<동포 대한의 필살로~>

오늘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뜨거워짐은
나만의 감정은 아니었으니~

이곳 선열들이 뿌린
자주와 독립의 씨앗은
후손들의 혼이 되고 땀이 되어
또 다른 불꽃으로 피어나리.

통일 조국의 밑알이 되고
열강 대항으로 승화되어
세계 만방에 들불처럼 번지리라.

선진 조국과
만방의 동포들이 하나되어
이제 아리랑을 넘어
통일 한국의 만세를 부르자!

<민족 혼과 얼을 지킨 고려인>

척박한 땅에서
맨주먹으로 살아남은 고려인들~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고려인협회,

100년을 지켜온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계봉우 황운정 선생과
홍범도 장군님 등 독립운동가의
혼과 얼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독립운동가독립유공자자손재단~

이것은 고려인의 기개와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송고한 징포들이 아니던가?

조국이 지켜주지 못했어도
오히려 조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까레이츠~

그들의 민족 혼이 가슴 저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회원 기고

홍범도 대장군과 ‘... 19’ 그리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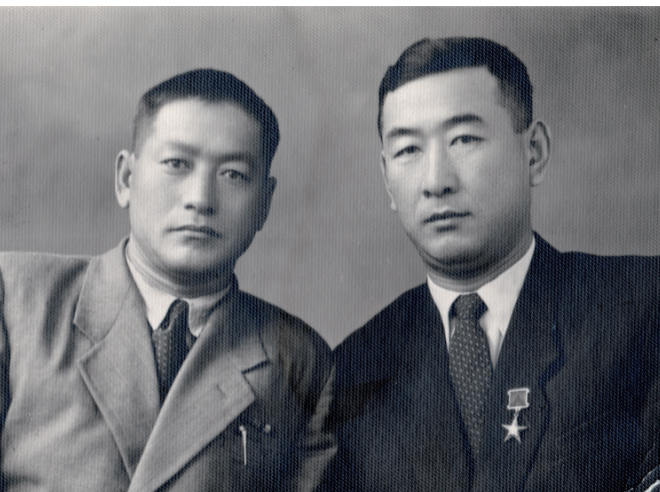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지사장

1. 나

나는 동포 4세대.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쉬켄트시에서 흘러 내려 오는 크지 않은 강이 있다. 강 이름은 치르치크(Chirchik)강이다. 이 강을 따라 타쉬켄트 주의 위-중간-아래 치르치크군이 있다. 1937년 늦은 가을에 물 없는 양기울역 벌판에 내려 여기에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몇 분이 걸어가 찾은 곳이 갈대밭 황무지였다. 우즈베크 민족은 농사를 아주 잘짓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땅을 농사용으로 포기한 것 같다. 이곳을 개간하여 벼 농사를 시작했다. 죽느냐? 사느냐? 선택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았다. 어떻게 거의 맨 손으로 이 작업을 했는지? 나는 지금도 의문이다. 하지만 생존 의지가 강했는지 1938년은 풍년이였다. 수확량이 너무너무 많아 다들 놀랐다. 이 때부터 고려인 마을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1949~1953년 동안 우즈베크 동포 중에서 138명의 소련 노동 영웅이 나왔다. 그 중 타쉬켄트 주의 132명이 주로 이 3개 군 출신들이다.

나는 Sverdlov 집단 농장에서 태어났다. 참 독특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때에 ‘나는 고려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나는 시온고 사람’을 덧붙였다. 연해주에 있을 때 우리 마을 이름은 <신영거우>였다. 내가 꼬마 시절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다른 마을 어른들이 물으면 ‘시온고 사람이오’ 자신있게 답했다. ‘오! 시온고 사람이구나!’하고 그들은 존경하는 목소리로 나한테 말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



랐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강제 이주로 인해 많은 불의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 잘못했다가 온 가족 총살 당할까봐 아마도 그렇게 입단속 했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 우리 민족은 ‘별 일 없이 가족과 이웃과 이롭게 살자’란 정신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마을 대다수 서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조선시대 말기에 고향 땅을 떠나면서 연해주에 뿌리 내렸을 때, 그 이후 Bolshevik 혁명, 내전 그리고 여러나라 군단들 그 중 7만 일본군과 맞싸웠을 때, 1922년 적군을 태평양으로 몰아내 승리의 맛을 봤을 때, 1937년 강제 이주 시 일본제국 앞잡이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찍혔을 때 그리고 중앙아시아 낯선 토양과 기후를 만나 농사로 대성공하여 2차 대전, 그 이후 소련 군량미 확보에 많은 공을 세웠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롭게 사는 세상’을 찾으려고 근육이 터질 정도로 노력해왔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마을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다. 소련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훈장을 받고 마을 시설들은 너무 잘 구성되어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물이 되었다. 지금도 마을 병원, 잔디 축구장, 야와·실내 영화관, 마을 공원, Dancing pool, 유치원, 학교 건물 흔적들을 보면 왜 수많은 외국 대표단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는지 이해가 된다. 연해주로 이전한 조선인 조상들로부터 100년 이상 지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행복한 세상을 만났다. 어린 나이에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땀 흘리면서 이런 아름다운 꿈에서만 본 마을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듣기만 했지만 어려서 상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러시아 Novosibirsk 대학에 붙고 중간에 폴란드로 군대 갔다오고 대학 졸업 1년 전에 내가 살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아왔던 가치관, 나라의 시스템, 나의 삶의 성공 부분들이 뺄점이 되어버리고 앞길이 캄캄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직책이 시온고 마을 집단농장의 부회장이었다. 조상들이 개간한 땅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 시설들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속이 까맣게 타버리셨을 것이다.

나는 이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다. 나의 그 당시 존재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하고 나의 가족을 챙기는 일이었다. 우리민족의 정서 - 부모는 자식들 키우고 자식은 부모 모시고 사는 것-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장면이다. 그런데 나의 시대에 이것이 깨졌다.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먼 도시에서 돈을 벌어야했고, 마을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있어 이산 가족들이 많이 생겼다. 나를 찾아왔다. 이미 힘이 없어 말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해 주셨다. 그 몇초가 아직도 어머니한테 고맙고 내 가슴을 찢는다.

알마티에 내 집이 없어 부모님 모시고 살 여력이 못했다. 엄마는 내 눈하고 마주친 후 눈을 감고 밥 한 알도 물 한 방울도 드시지 않으셨다. 나를 빨리 가족한테 보내기 위해 자기 마지막 순간을 더 빨리 오게 만드셨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악물고 세상 살아왔던 내가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남을 배려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한테 배웠지만 그땐 그 따위가 다 필요 없더라구요! 돈 막 벌어서 남을 괴롭히면서 부모를 모시는 나의 학교 동창이 있었지만 저의 부모님은 아마도 반대했을 겁니다.



① 1927년 3월 1일
3·1절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

결국 나는 부모님 장례식, 제사만 치르고 '별일없이 가족과 이웃과 이롭게 사는 세상'을 찾으려 계속 앞으로 달려갔다. 그 동안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했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 세상 어느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정도 경험해 봤다. 큰 나의 집엔 큰 나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 엄마 아빠가 이런 나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든다.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보고 계시지요?”

2. <감염병 - 19>

2018년도가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이런저런 일의 결과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고 큰 집으로 이사 오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디서 읽었는데 “아빠가 이 세상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을 아들 통해 남기지 않고 딸 통해 남긴다”는 것을 알게됐다. 아들만 셋인 아빠라서 “좀 아쉽네” 생각이 들었다. 별일이 없지만 약간 아쉬울 뿐...이었는데... 우리 딸 생겼대요! 뭔가 남길 것이 있나봐요? 그리고 그 해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만나게 되었다.

2019년도 좋게 시작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첫 일정이 알마티에서 고려인 한국인 동포와의 만남이었다. 만찬 전 우리 기념사업회 위원식 이사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리고 문대통령과 짧은 악수를 하면서 느꼈다. 우리는 방문 시 사진 찍기 배경화면이 아니고 소중한 우리 한민족의 부분이다. 이 일에 일제 무장투쟁 하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저의 어머니 가문에도 한창걸, 한성걸, 한알렉산드로 3형제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형제들도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 임명됐다. 이렇게 좋은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2020년 들어서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감염병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시작했다. “엄~병”을 전라남도 발음으로 읽으신다면 저의 소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인간 취급받고 사람답게 살고자만 하면 뭔가 거대한 어두운 힘이 와서 우리를 항상 괴롭힐까? 왜 또 나의 늦둥이 딸과 나이 드신 장모님한테 병을 옮길까봐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할까?

분노했지만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사회지도자도 아니고 집에서 떠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우리 조상들도 거대한 일제 군대 앞에서 무섭고 거대한 갈대 황무지 앞에서 순간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찾는 중 동영상 하나 봤다. 영국 간호사가 식품 싹쓰리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항의하는 영상, 그리고 한국에서 허리 꾸부러진 할매가 도시락 싸와 PCR 테스트 인원들한테 주는 영상. 그리고 개인주의 사회 사망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사망률. 아! 이거다!

중앙 아시아에 대표적인 요리가 하나 있다. “Osh”-pilaf 고기볶음밥의 뜻은 -진정한 사람의 음식- 이다. 인생 살면서 나는 이 요리를 만드는 솜씨가 생겼다. 어느 누구도 할 수는 있지만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는 두려움 때문이다. 마침 얼마 전 “Nauryz”란 큰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기도 모임 친구들한테 위 영상들을 설명하고 Almaty시 감염병원 1교대 인원에게 맞춰 75인분을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기로 했다. 모금을 하여 식자재를 구매하러 갔다. 나와 큰 아들이 장을 보고 있는데 상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새끼,



자기만 살겠다고 식품을 싹쓰리하는군”으로 오해 받은 것이어서 웃음이 뺨 터졌다.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상인들이 가격도 싸게 주고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담아줬다. 그 당시 의사들은 집에도 못가고 격리 때문에 호텔이나 정해진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식사 문제가 심각했다. 밥 해 먹을 시설도 없고 할 시간도 안돼 그 당시 사람 머리 속에 가장 위험한 곳은 우리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가져다 줄 그 병원이었다. 만들다보니 점심, 저녁 먹을 수 있게 150인분이 나왔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알고 100일 동안 점심, 저녁 75인분을 준비해 배달해줬다. 일반 시민들 손으로 도시 폐쇄 명령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도. 하지만 경찰들도 병원을 위한 봉사임을 알고 협조해줬다. 그리고 이 일 보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중 최고 부자인 한 분이 이어서 100일간 최고급 식당 음식을 그 병원에 보내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건 아니지...” 운동은 국경을 넘었다. 한인 교회들 위주로 전 세계로 퍼졌다. 그 많은 격리 제한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나라는 미국이다. 거주하는 나라, 체제, 이념, 사회 계급 다 떠나서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본심이다. 청산리 전투와 같은 현상이다. 그 때에도 머슴, 농민, 양반 다들 힘을 하나로 뭉쳐 승리를 얻었다.

나는 작은 촛불 같은 존재이다. 약하고 금세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약한 불로 거대한 어둠을 빛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촛들에게 전달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 어느 누구나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무관심 안하면 된다.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내가 한 번 보낸 촛불이 지금 이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자부한다.

3. 홍범도대장군

장군님과 2018년에 처음 만났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탐사팀하고 크즐오르다에 같이 가게 됐다. 다들 홍범도장군 한 분을 위해 같은 목표로 왔지만 왠지 금이 간 거울처럼 이 세상을 갈라진 두 조각으로 보여준다고 느껴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조직 만들어 뿔뿔 뿔치는 속도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1등이다. 그리고 갈라치기 작전에 더 빠른 속도로 응한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남한도 호남 영남 좌우로, 북도 남도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심지어 우리 민족을 단어 하나로 부르는 것은 외국어에서만 표현된다. 우리 말에는 딱히 한 마디로 정해진 민족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조선사람, 한국인, 그리고 동포 명도 재미동포, 재일동포, 조선족, 고려인, 마치 누구는 동포고 누구는 동포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나한테는 이 문제가 항상 의문이었다.

두 번째 만남은 2021년에 이루어졌다. 장군님 유해봉환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역사 속에 나도 있었다. 비행기장 나왔던 모든 분들, 양국 정치인들, 유명 배우, 호위군인들, 기자들, 방송국 직원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카작인들, 한국인들, 고려인들 다들 하나가 되었다. 장군님 유해를 모시는 것 보고 다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었다. 홍범도장군님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특별기가 크즐오르다 하늘을 세바퀴 돌고 조국을 향해 작은 점으로 보였을 때 나의 소원은 “이번에는 가셔서 편히 주무세요” 였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 영공 도착했을 때 호위 공군들, 안장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우리 두 나라의 정상 만나는 것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그냥 정치쇼 절대로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대의다. 고려인 독립 유공자들

을 “빨갱이”로 부르는 분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2022년 연말에 “홍범도 그리고 그의 동지들”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됐다. 나한테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오래 전 “왜 이렇게 쉽게 갈라질까” 의문이 풀렸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자, 좀 더 알고 싶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해서 그런건지 모자라서 그런건지? 결론부터 내린다. 그 결론은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놈 저런 놈”으로 대부분 끝난다. 학자분들 신나게 토론하시는 것 옆에서 지켜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다. 단어 하나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분들이 눈 뵈짝뵈짝 막 뭐라고 하



면서 신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 민족 한조각 한조각에 대해서 좀 더 밝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보였다. 이 분들 연구 결과물은: 우리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고, 알게 되면 존경하고, 존경하면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진정한 협조의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중이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지난 10월말~11월초 카자흐스탄 역사 탐사 팀원들이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따로따로 놀았던 카자흐스탄 조직들이 협조 모드로 바뀌고 결국 다들 적어도 내내 밥은 맛있게 먹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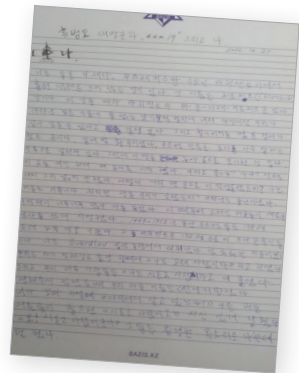
이번 출장에서 다시 한번 장군님을 만나게 됐다. 실은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기고 나라고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긴 홍범도 장군이 조국 땅에서 편히 안장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추운 날 대전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선 따뜻한 분들이 날 기다리고 계셨다. 대전 지부장 오광영 이사님은 내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자세한 보고부터 받았다. 그리고 현충원으로 향했다.

나한테는 장군님 묘역에 국화 올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의 조상인 한창걸 선생은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위패조차도 없어 동시에 추모한 시간이었다. 홍범도 장군은 직접 간접적 후손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 후손이 많다. 그 중심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서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각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거대한 힘 앞에서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관심 하지 않았다. 우리 기념사업회에도 그런 사람 많다. 그리고, 내가 현충원에 간 전 날 누군가가 장군님 묘역의 눈을 치우고 간 것만 봐도 그런 사람 많다. 인생 살 맛이 난다!!!

인사말

저의 짧은 한국어를 편집하시느라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 쓰면서 중앙아시아식 볶음밥 500인분 만드는 것 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매운 눈물 떨어지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023년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사님, 회원님 한분한분 손으로 새 역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 한창걸 ☹ 박 드미트리의 손글씨 원고

기념사업회 소식 01 제2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전쟁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고,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룬 홍범도 장군과 이와 함께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는 10월 20일~23일에 전라남도국제사격장(전남 나주시)에서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 나주시, 전라남도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대한사격연맹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총 77개 팀에서 240명의 선수들이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권총

구분	이름
남자 시니어	1위 김청용(창원특례시청)
	2위 이대명(경기도청)
	3위 조원준(동명대)
여자 시니어	1위 김예지(임실군청)
	2위 김민정(KB국민은행)
	3위 유현영(서산시청)
남자 주니어	1위 김강현(전북체고)
	2위 김현수(대전체고)
	3위 이종혁(홍덕고)
여자 주니어	1위 오예진(제주여상)
	2위 김정은(동해시청)
	3위 이시윤(임실군청)

소총

구분	이름
남자 시니어	1위 이상휘(보은군청)
	2위 박성현(서산시청)
	3위 김우림(보은군청)
여자 시니어	1위 박선민(경기도청)
	2위 박다혜(청주시청)
	3위 최은정(울진군청)
남자 주니어	1위 정성현(대전체고)
	2위 방승호(한광고)
	3위 배서준(울산상고)
여자 주니어	1위 장정인(울진군청)
	2위 권은지(울진군청)
	3위 박예은(여수여고)

한편, 10월 20일에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우원식 이사장을 포함한 기념사업회 이사들 외에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강영구 나주 부시장,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정훈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그리고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장이 참석하여 홍범도장군의 정신을 함께 기리며 자리를 빛내 주셨다.



기념사업회 소식 02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및 순국 79주기 추모식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과 홍범도장군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10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제3묘역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전현충원의 지원과 함께 오광영 이사가 대전 지역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였고, 황원섭 부이사장, 홍순계 상임이사, 홍성종이사, 부윤경이사, 이명우이사 및 애지모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치루었다. 내년은 순국 80주기가 되는 해로서, 내빈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03

카자흐스탄 역사탐방

2021년 8월 15일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후 강제이주 이후 홍범도장군이 거주하고, 서거 후 잠들어 계셨던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장군의 구 묘역을 참배하고, 향후 고려인,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이 함께 장군의 독립전쟁 정신을 계승·유지하고 상호 교류하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28일~11월 3일 기념사업회 이사와 회원 15명이 알마티와 크즐오르다를 방문하였다.



봉환 후 후속사업은 (1)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 묘역 보존 및 관리, (2)카자흐스탄 청년 교육 기회 확대 사업, (3) 카자흐스탄 농산물과 한국 선진 농업기술 교류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탐방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고려일보, 고려극장, 독립유공자자손재단과 함께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려인 사회,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의 관계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아울러 고려일보, 카자흐스탄고려인연합, 크즐로르다고려인협회 임원들과 함께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선생의 구 묘역을 참배하였다.



① 신 유리 게르마노비치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우원식 이사장

② 고려극장 니류보프 아브구스토브나 감독(가운데)

③ 독립유공자자손재단과 회장 박타티아나 티모페예브나(이사장 오른쪽)와 관계자, 노송달 한국 고려인협회장(오른쪽 끝)

우원식 이사장은 양국의 농업교류를 위해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주간 MOU 체결과 양 기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김관영 전북 도시자의 초청장을 크즐오르다 주지사 Mr. Nalibayev Nurlybek Mashbekovic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에 맞추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크즐오르다국립대학의 교류를 기획 주선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크즐오르다대학이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정부의 ODA 지원사업으로 크즐오르다대학 내에 인공지능정보대학(4개과 개설, 일명 홍범도장군칼리지) 설립 사업을 현실화 하였다. 우리 정부 지원금은 2023년부터 7년간 28억원이다. 이번 우리 기념사업회 탐방단은 크즐오르다대학 총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류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협의했다.



④ 크즐오르다 주지사에게 전북 도시자의 초청장 전달

⑤ 크즐오르다 국립대학 미팅

⑥ 홍범도장군 카자흐스탄 묘역정비 계획

탐방단은 크즐오르다 일정을 마치고 다시 알마티로 돌아와 카자흐스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려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빙과류를 처음 수출한 '신 라인' 회사를 방문하였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복싱, 레슬링, 역도 등의 대표팀을 훈련하는 'Olympic Land Club'을 방문하였다. 예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비롯하여 클래식, K-POP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Namson Family'를 방문하였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는 천산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탐방단의 워크샵이 있었다. 빽빽한 일정으로 일부에서 힘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탐방단이 고생을 많이 하였고, 그 만큼 잔잔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생각과 느낌과 의미와 다짐을 가지고 왔다.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많은 의미있는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기념사업회 소식 04

학술회의

12월 9일에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2)'을 주제를 학술회의를 열었다.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원장(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진행으로 한국외대 사학과 이숙화 교수, 홍범도아카데미 김경준 간사, 그리고 독립운동가 한성걸 선생의 손자인 한블라디슬라프 선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셔서 논문을 발표하셨다. 본 학술회의는 우원식 이사장과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인사말과 축사로 축하해 주셨다.



기념사업회 소식 05

<봉오동 전투도> 기증식

12월 9일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회원인 김수빈 학생(단국대 동양학과 전공)의 그림 <독립군의 계획된 첩보전 : 봉오동 전투도>가 우리 기념사업회에 기증 되었다.

김수빈 학생은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포함한 무장독립군들이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거머쥔 첫 대승인 봉오동 전투를 기념하고자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전투지도인 만큼 봉오동의 실제 지형을 반영하고자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최운산 장군의 후손인 최성주 이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봉오동의 탄탄한 한민사회의 생활기반을 나타내기 위해 민가와 논밭을 그려 넣었고, 독립군 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을 표현하기 위해 연무장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특히 일본군 퇴각로는 광장히 구불거리게 그렸는데, 일본군이 전세가 기울자 정신없이 퇴각하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의 들꽃을 전투지마다 그려 당시 외롭고 고단했을 독립군에게 조선의 향기를 실어다 드리곤 작家的 심정을 반영하였다. 각 전투지마다 주작, 청룡, 백호 등의 신수를 활용하여 봉오동 전투가 대승한 전투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독립군의 계획된 첩보전 : 봉오동 전투도>
김수빈 작, 162.2 × 130.3, 순지에 분채, 석채

기념사업회 소식 06

송년회

12월 30일에 송년회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었다. 우원식 이사장 내외와 황원섭 부이사장 등 29명이 참석하여 지난 1년의 활동을 영상으로 돌아 보고 서로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청소년센터에서 2023년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아 홍범도장군을 그린 청소년들의 그림으로 만든 달력을 우리 기념사업회에 기증하였다. 이 달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지사장을 통해 고려인연합회, 독립유공자자손재단, 고려일보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3시간 반의 시간 동안 참석 회원 전원 송구영신의 말씀과 건배사를 통해 즐거우면서도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은 모두 함께 독립군가를 부르며 행사를 마쳤다. 행사 비용은 당일 참가비와 부윤경 이사, 김성현 이사의 통 큰 지원으로 해결하였다.

회원 동정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우원식 이사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이끌었으며, 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638.7조원으로 확정돼 통과되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를 위한 예산과 유해봉환 후속조치인 '홍범도컬리지'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지난 7.31~8.7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 유지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를 전개하였다.



황원섭 부이사장

황원섭 (재)우당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는 12월 6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4회 우당상 영석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우당상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구현한 홍일식 전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영석상은 당시 굴지의 재산가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애국정신을 구현한 기업으로 사회공헌에 모범적인 기업으로, 침구류 전문업체인 (주)이브자리에게 시상했다. 독립운동을 전공한 대학원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은 10월 14일에 '무독국제한국학연구소'의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기증하였다. 이 자리에 부윤경 이사, 노정래 이사, 박석봉 이사, 송영운 이사, 장세윤 전문위원, 한동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셔서 연구소 개소를 축하해 주었다.



정광균 이사

정광균 이사는 10월 25일 금천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에 취임하여 금천구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광영 이사

오광영 이사는 12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지부를 만들어 6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장군 묘역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지사장

박드미트리 지사장은 12월 9일 학술회의를 맞아 한 블라디슬라프 선생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였다. 10월 28일 ~ 11월 3일 카자흐스탄 역사탐방 때도 이사님과 회원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학술회의 때도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깊은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블라디슬라프 선생의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소망했었는데, 이번에 그 꿈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이명우 이사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평남중앙도민회에서 12월 28일에 실향민 월남 1세 100 여분의 삶을 이야기 한 책 <두고 온 고향 남기고 싶은 이야기>의 발간식을 가졌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부윤경 이사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책은 이명우 이사께서 파일로 우리 기념사업회와 공유해 주셨다.



김우진 이사

김우진 이사는 12월 31일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의 대표이자 직업상담사로서 지난 9년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후원소개

1. 카자흐스탄 역사 탐방 후원

우원식 이사장(현지 선물 비용과 현금 미화 500불) / 이명우 이사, 정광균 이사, 한종관 이사, 홍재구 이사(현지 식대 후원) / 부윤경 이사(탐방단 해단식 행사 비용 전액 후원)

2. 2022 송년회 비용 후원 : 부윤경 이사, 김성현 이사

·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원

이 사 장 우원식 국회의원	행사분과위원장(2) 박석봉 육군사관학교 교수
명예 이사장 이종찬 우당기념관 원장	편집위원장 김용환 전 한남대 부총장
부 이 사 장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아카데미원장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감 사 박형상 변호사 / 前 서울중구청장	역사분과위원장 김종욱 법률사무소 율전 변호사
상 임 이 사 홍순계 前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디아스포라분과위원장 홍순계 전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 무 총 장 한동건 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재정분과위원장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행사분과위원장(1)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일반후원회원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JINCHUNXING 김현수광장세무법인 강근목 강석령 강연승 강지연 강태영 계민경 고재웅 고제열 고희오 구본환 권석중 권영희 권재석 김강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기욱 김대영 김대환 김도식 김미선 김미선B 김미자 김미희 김복수 김사엽 김선옥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순 김영아 김옥찬 김용경 김윤미 김은정 김정미 김정숙 김정식 김종철 김준수 김지연 김지현 김창관 김창한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김한의 김혁중 김현수 김홍혜 나명현 나홍섭 남한우 노두섭 노송달 노용기 마화용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권 민병훈 민태권 박경희 박국진 박기수 박기호 박기호 박남수 박민범 박범창 박상철 박선원 박은용 박점조 박준영 박지호 박철웅 박태근 박형동 박혜리 반병률 방선자 방은정 방학진 배영실 배효현 서병일 석진경 석해경 성원용 손여록 손정아 송국영 송상영 송정화 신동혁 신소봉 신정임 심규상 안성은 안승현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달막 양시모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염태선 오근영 우문식 우은영 유봉석 유숙현 유정은 유지곤 유진호 윤진희 이기환 이남정 이대호 이도우 이동익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상걸 이상진 이상미 이수연 이숙화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우엽 이우영 이원정 이유창 이은영 이정원 이정화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지연 이태준 이태훈 이행란 이현숙 이현주 이형운 이형철 이희진 인미동 임현문 장경진 장송희 장수정 장영진 장진섭 장현우 전광출 전부선 전중선 전한빛 전형범 전홍기 정기일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성관 정승일 정윤미 정인택 정준수 정찬희 정현석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성철 조영목 조영익 조영자 조정선 조현재 주미희 지애숙 지영순 지현주 진경모 채계순 채인묵 천상영 최성우 최원희 최옥수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남희 한영우 한재원 한판준 홍경표 홍광기 홍진표 홍정희 홍종명 홍진표 황덕순 황성연 황은주 황중섭 황준환 황희연

이사

김경호 前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제종길 (사)도시·인·숲 이사장/17대 국회의원
김성현 SM그룹 전무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김수송 (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오광영 前 대전시의원/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조태수 (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용봉 한국빅데이터학회교수	대전지역모임 대표	채예진 고려인협회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오세중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김장선 (주)해밀리팜 대표이사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최 윤 E3플랜비 대표이사/강원도 지속가능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위평량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	발전협의회 회장
김진형 전前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 용 前 서울시의원	최익훈 연세대 교수
김태원 NH 증권 부사장	유정배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승관 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김 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유희태 전북 완주 군수/일문구 의사 선양사업회 회장	한종관 서울시립대교수, 혁신전략연구원 대표이사
노정래 前 (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이경철 前 노원구의회 의장	홍성덕 前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홍성종 남양홍씨 남양군파 회장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이상옥 13대 국회의원	홍용의 (주)평화메탈 대표이사
박대봉 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주식회사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홍이표 하이리빙 대표
박드미트리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홍범도	이행란 애지모 대표	홍재구 당정사적보존회 회장
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정광균 (주)미르나인대표이사	황윤하 국회의원
박점조 애지모 봉사단장	정내하 (주)미네랄하우스 대표	
박준수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센터장	정보현 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변재용 한솔교육 그룹회장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 후원 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 가입 문의 | 한동건 사무총장(010-2769-2002), 사무국 김은정(010-2388-7795) |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